

직장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참여시간 분석

김 희 경(성신여자대학교 석사) · 고 선 강(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현대사회의 가정은 양성평등 사회로의 진입, 가족형태의 변화,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2004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의 하루 24시간의 시간자료를 사용하여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분석하여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여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이상 직장 남성이 하루 평균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는 시간은 34.05분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관리 영역은 22.73분,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약 11.32분으로 가정관리 영역에서 약10분의 시간을 더 보내고 있었다. 20대 이상의 직장 남성이 가정관리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역은 청소 및 정리이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역은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영역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사별 혹은 이혼을 하고, 미취학자녀가 없으며, 소득이 작을수록,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인 남성인 경우 참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30대 남성의 참여가 가장 컸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있고, 미취학자녀가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사무종사자이며, 임금, 봉급 근로자인 남성의 참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남성이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는 시간은 34.78분, 비맞벌이 남성이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는 시간은 34.22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에 22.48분,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12.30분의 참여시간을 보였으며,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관리 영역에 17.43분,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16.79분의 참여시간을 보였다. 맞벌이 남성이 가정관리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역은 청소 및 정리였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미취학자녀 보살피기였다. 비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의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에서 가장 많은 참여시간을 보였고,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영역에서 가장 많은 참여시간을 보였다. 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에서 20대와 50대의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은 남성보다 낮은 남성이,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며, 무급가족종사자이며,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남성이 참여시간이 길었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2,30대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취학자녀가 있으며, 저소득에 비해 고소득이며,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의 참여시간이 길었다. 비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에서 20대이며,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이며,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의 참여시간이 길었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2,30대이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취학자녀가 있으며, 저소득에 비해 고소득인 남성이, 사무종사자이며, 임금, 봉급근로자인 남성이,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남성일수록 참여시간이 길게 나타났다.